

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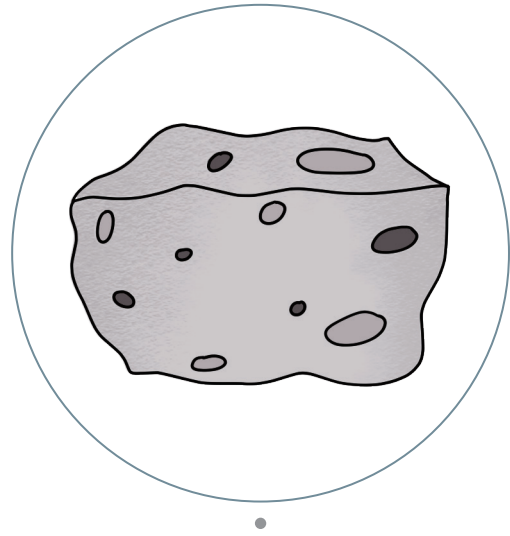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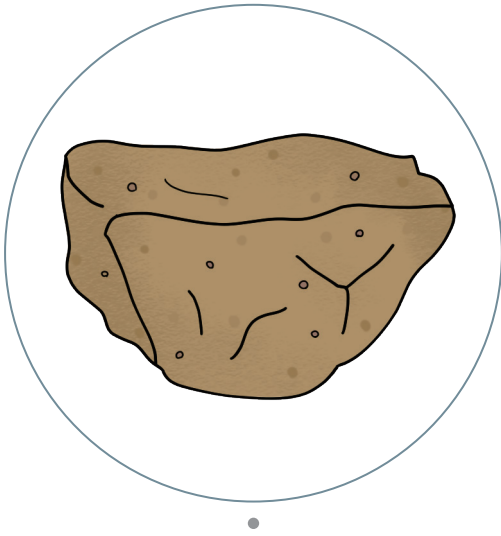


월

일

해 보기

다음은 암석의 모습입니다. 각 암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에 선으로 옮겨 연결해 봅시다.



연한 갈색

회색

알갱이가 크다.

알갱이가 작다.

색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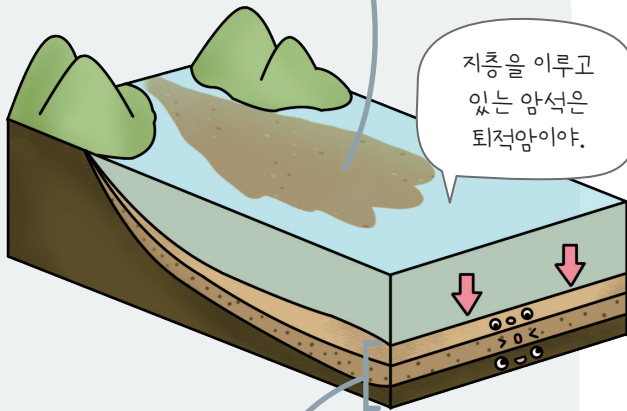
알갱이의 크기

지층을 이루고 있는 퇴적암을 분류해 볼까요?

여러 가지 퇴적암을 관찰해 보면 알갱이의 크기, 색깔, 촉감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무엇일까요?

물이 자갈, 모래, 진흙과 같은 퇴적물을 운반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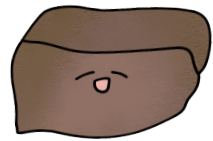
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퇴적암이야.

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퇴적물이 눌러 굳어져 암석이 되는데, 이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.

지층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퇴적암은 자갈, 모래, 진흙과 같은 퇴적물이 쌓여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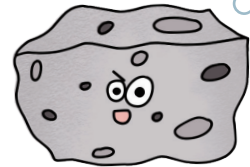
모래 크기 정도의 알갱이가 보이며, 회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거친 느낌이 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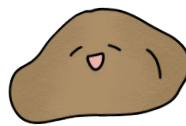
알갱이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, 진한 갈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매우 부드럽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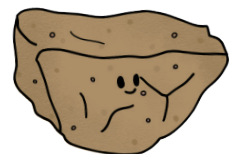
크고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고, 갈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움도 하고 거칠기도 합니다.



크고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고, 회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다양한 느낌이 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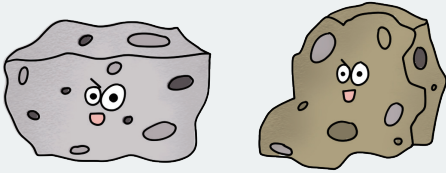
알갱이가 거의 보이지 않고 갈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매우 부드럽습니다.



모래 알갱이가 보이고, 연한 갈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까슬까슬합니다.

관찰한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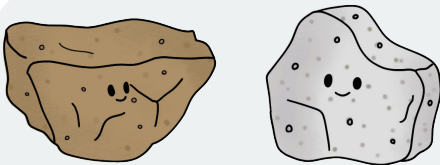


크고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습니다.

역암

주로 자갈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인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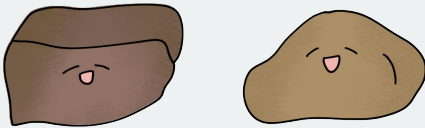


주로 모래 크기의 알갱이가 보입니다.

사암

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



알갱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

이암

진흙처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역암, 사암, 이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까요?



역암을 관찰하면 굵은 자갈을 볼 수 있습니다.



사암을 관찰하면 모래 알갱이를 볼 수 있습니다.



이암을 관찰하면 알갱이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.



같은 종류의 퇴적암이라도 모양과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암석의 색깔이나 모양은 암석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.

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역암, 사암, 이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Q2 힌트

마무리 학습

>> : 자갈, 모래, 진흙과 같은 퇴적물이 쌓여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.

>> 퇴적암의 분류: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역암, 사암, 이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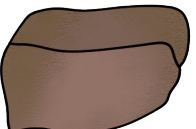
퇴적암	역암	사암	이암
알갱이의 크기	큼.	중간 정도	작음.
퇴적물	주로 , 모래 등	주로 모래	진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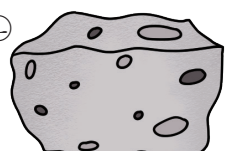
1 다음은 여러 가지 퇴적암입니다. 각 암석의 알갱이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에 선으로 옳게 연결해 보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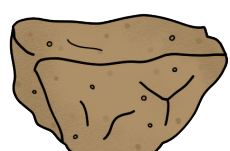
-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역암 • | • ㉠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. |
| (2) 사암 • | • ㉡ 알갱이의 크기가 작다. |
| (3) 이암 • | • ㉢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 정도이다. |

2 주로 자갈과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<보기>에서 골라 기호를 써 보시다.

보기







()

3 대한이는 퇴적암을 역암, 사암, 이암으로 분류했습니다. 대한이의 분류 기준을 설명해 보시다.

역암, 사암, 이암으로 분류한 기준은



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

0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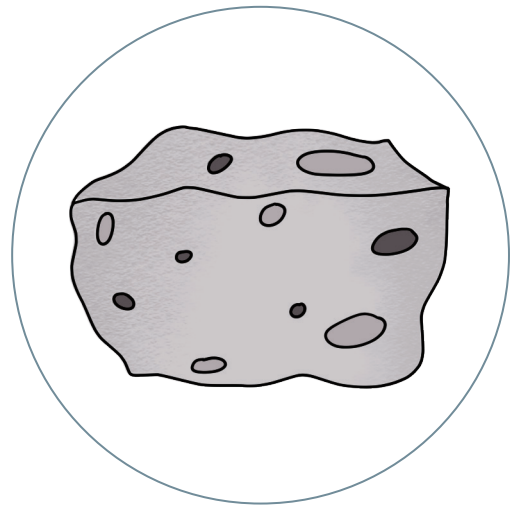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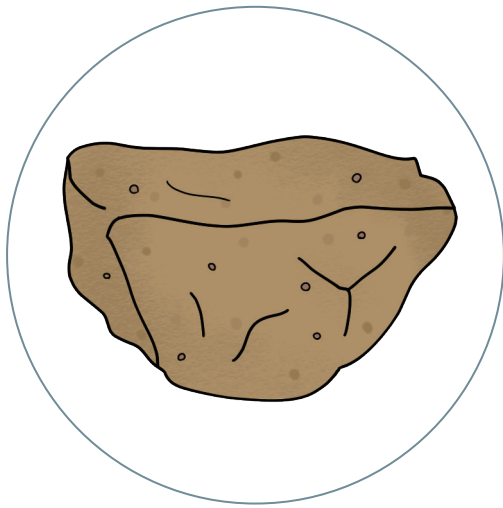
월

일

해 보기

★ 바른 답 확인하기 4쪽

다음은 암석의 모습입니다. 각 암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에 선으로 옳게 연결해 봅시다.



연한 갈색

회색

알갱이가 크다.

알갱이가 작다.

색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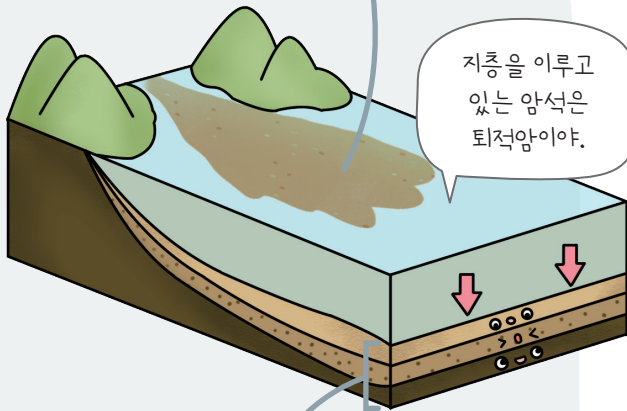
알갱이의 크기

지층을 이루고 있는 퇴적암을 분류해 볼까요?

여러 가지 퇴적암을 관찰해 보면 알갱이의 크기, 색깔, 촉감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무엇일까요?

물이 자갈, 모래, 진흙과 같은 퇴적물을 운반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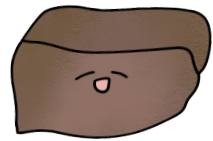
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퇴적암이야.

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퇴적물이 눌러 굳어져 암석이 되는데, 이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.

지층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퇴적암은 자갈, 모래, 진흙과 같은 퇴적물이 쌓여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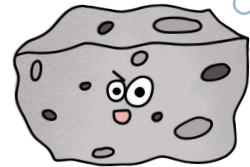
모래 크기 정도의 알갱이가 보이며, 회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거친 느낌이 납니다.



알갱이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, 진한 갈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매우 부드럽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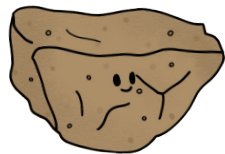
크고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고, 갈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움도 하고 거칠기도 합니다.



크고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고, 회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다양한 느낌이 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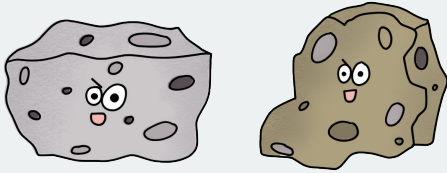
알갱이가 거의 보이지 않고 갈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매우 부드럽습니다.



모래 알갱이가 보이고, 연한 갈색입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까슬까슬합니다.

관찰한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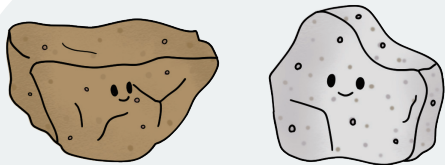


크고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습니다.

역암

주로 자갈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알갱이의 크기가 중간인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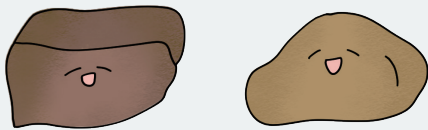


주로 모래 크기의 알갱이가 보입니다.

사암

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



알갱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

이암

진흙처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역암, 사암, 이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까요?



역암을 관찰하면 굵은 자갈을 볼 수 있습니다.



사암을 관찰하면 모래 알갱이를 볼 수 있습니다.



이암을 관찰하면 알갱이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.



보충!! 같은 종류의 퇴적암이라도 모양과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암석의 색깔이나 모양은 암석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.

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역암, 사암, 이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Q2 힌트



» 퇴적암 : 자갈, 모래, 진흙과 같은 퇴적물이 쌓여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.

» 퇴적암의 분류: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역암, 사암, 이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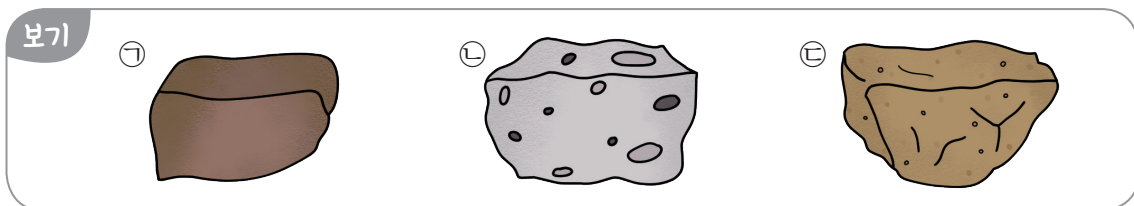
퇴적암	역암	사암	이암
알갱이의 크기	큼.	중간 정도	작음.
퇴적물	주로 자갈, 모래 등	주로 모래	진흙



1 다음은 여러 가지 퇴적암입니다. 각 암석의 알갱이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에 선으로 옳게 연결해 봅시다.

- (1) 역암 Ⓐ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.
- (2) 사암 Ⓑ 알갱이의 크기가 작다.
- (3) 이암 Ⓒ 알갱이의 크기가 중간 정도이다.

2 주로 자갈과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<보기>에서 골라 기호를 써 봅시다.



(Ⓒ)

3 대한이는 퇴적암을 역암, 사암, 이암으로 분류했습니다. 대한이의 분류 기준을 설명해 봅시다.

역암, 사암, 이암으로 분류한 기준은 알갱이의 크기입니다.

